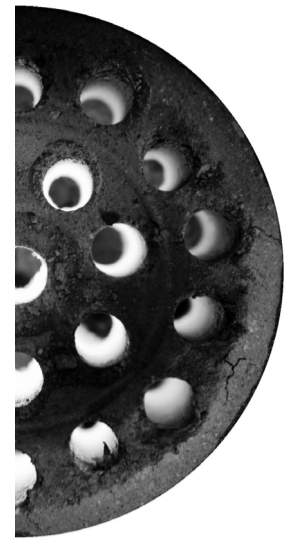


서민 삶 지펴온 70년 역사 마감 남선연탄 결국 폐업



1일 폐업신고가 수리된 광주시 남구 송하동 남선연탄의 지난해 마지막 연탄 생산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연탄 생산 공장이었던 '남선연탄'이 1일 결국 폐업했다. 연탄이 주 난방재로 활용되던 시대부터 광주·전남 서민과 함께해온 남선연탄이 수요 급감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70년 역사를 마감한 것이다. 연탄 한 장으로 추운 겨울 밤을 버텨냈던 광주·전남 에너지 취약계층들은 당장 올해 겨울나기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광주시 남구는 지난달 29일 광주시 남구 송하동에 있는 남선연탄이 제출한 폐업신고를 이날 수리했다. 남선연탄은 폐업신고 8일 전인 지난달 21일부터 공장가동을 중단했다. 광주에는 남선연탄이, 전남에는 화순연탄이 연탄을 생산해 왔지만, 화순연탄은 몇해 전 경영난으로 기체가 가압류 돼 지난해부터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하고 멈춰있다.

결국 지난 1954년 문을 연 남선연탄이 광주·전남 지역 유일의 연탄 생산공장이었다. 남선연탄은 지난해 6월 폐업하기로 결정했다가 지난해 겨울 광주·전남 취약계층인 연탄가구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재가동을 해왔다. 남선연탄은 1980년대 한해 1억 5000만장까지 판매했지만 지난해 판매량은 400만장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 유일한 연탄공장 경영난 못 이기고 폐업 신고 전북서 수급...가격 상승 부담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 '빨간불'

연탄 출하량이 급감하자 공장 부지(1만9834㎡) 중 절반이 공터로 남게 됐고 운전기 한 기로 주 3일(월·수·금) 정도까지 짧은 시간만 운영해도 재고가 쌓일 정도였다. 수요가 줄다보니 남선연탄의 경영은 날로 악화됐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에너지 취약 계층을 고려해 화순지역으로 이전 등을 고려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공장 규모를 줄여 생산을 유지하고 민원을 피하기 위한 방책이었지만 불발된 것이다.

광주·전남 4000여 연탄 가구(광주지역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는 712가구를 포함한 1000여 가구, 전남 기초생활수급 2436가구 등 3000여 가구)에는 비상이 걸렸다. 당장 올해 겨울 나기부터 기존보다 비싼 가격에 연탄을 구매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남선연탄이 문을 닫게 됨에 따라 연탄대리점들이 전북 전주 연탄은행에서 연탄을 실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남선연탄에서 생산된 연탄은 한장에 850원에 판매했지만, 전북에서 가져오면 운송비 150원~200원 가량이 가산돼 연탄 한장을 1000원 안팎에 판매해야 하는 것이다.

대리점들은 "대리점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연탄을 운송하고 보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 대량으로 실을 수 있는 차량과 대형 창고 등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논의해보겠다"는 대답 뿐이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 연탄대리점 관계자는 "남선연탄 공장 가동 중단이 처음 논의됐을 때부터 시와 구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이 가격 부담에 연탄을 사지 않으면 대리점 판매가 줄 수밖에 없고 덩달아 연탄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현재까지 마련된 대책은 없으나, 올해 5월 추경에서 연탄가구 지원금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병역면탈 의심자 조사대상 누락한 광주병무청

병무청 감사서 지적사항 5건

광주·전남지방 병무청(광주병무청)이 병역 면탈의심자를 조사대상에서 누락해 공정병역 실현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1일 병무청이 공개한 광주병무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5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감사결과에서는 병역관리에 대한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중점관리대상 질환'을 가진 병역의심자중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경우 전담조사 소견서를 첨부하고 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해야한다. 하지만 광주병무청에서는 병역 시스템 상 '검사소견'이라고 기재된 21명의 의심자 중 7명의 관리대상을

'특이사항(병역면탈)'란에 등록하지 않았다. 병역면탈여부를 확인해야 할 특별사법경찰은 사실관계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광주 병무청 소관 북부기관에서 병가·특별휴가 등의 대상인 사회복무 요원에게 착오로 89건의 공가를 허가하기도 했다.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지난 소재지 이전 병역지정업체 19곳에 대해 실소사를 제때 하지 않는 등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28명에 대한 국적실실(이탈)자에 대한 병적 정리를 2년이상 지연한 점과 동원훈련 소집 통지 취소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점도 적발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업공고 시점 거래 사례 기준 토지보상금 정당하지 않아”

광주지법 “중중에 추가보상해야”

토지를 수용할 때 사업계획 공고로 낸 시점과 가장 가까운 거래 사례만을 기준으로 토지보상금을 매기는 것은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중중이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근린공원 1지구 공동사업자인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연대해 A중중에 1억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020년 피고들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다. 중앙토지 수용위원회는 지난해 1월 5일 A중중의 임야 1만3358㎡를 손실보상금 25억5300여만원으로 수용결정했지만 A중중이 손실보상금 산

정시 위법하다고 거부해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손실 보상을 공탁했다. 광주시 등은 사업계획 공고일 전 가장 가까운 시점(2017년 12월 6일)에 거래된 사례를 기준(㎡당 19만5200원)으로 수용보상금을 책정한 '수용재결 감정인'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책정했다. 반면 법원감정인은 선형 거래(2017년 5월 12일)가 된 사례를 기준(㎡당 20만 5700원)으로 27억 470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책정했다. A중중은 토지에 대한 감정이 성실과 활용도가 상이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보정거래사례'로 선정해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 나왔다고 위법한 평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업계획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을 평가 선례로 참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감정인이 기준으로 한 거래사례가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의 한 대학교에서 이적표현물 다량 발견

광주의 한 대학에서 다량의 이적표현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광주 A 대학에서 건물 내부 리모델링 중 천장에서 이적표현물을 수록한 서적 등이 오랜 기간 방치된 모습으로 발견됐다. A 대학은 경찰에 신고했고, 광주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이적표현물을 모두 수거했다. 경찰은 서적 외에도 최루탄 등 시위진압용품 등이 함께 발견된 점을 토대로 과거 학생운동이 활발했던 시기 천장에 숨겨뒀던 물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리모델링 공사 현장은 과거 동아리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등을 살펴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왜 험담해” 중학 동창 폭행 10대 여고생 2명 검찰 송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중학교 동창을 폭행한 여고생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여고생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7일 밤 9시께 광주시 북구 신용동의 한 공원에서 중학교 동창 A양의 뺨을 때리고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A양의 보호자는 폭행 장소에 있었던 8명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중 4명은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며 4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입건된 4명 중 2명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한 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은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양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공원으로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 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Card
VISA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0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지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터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